

2007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고1)

• 1교시 언어 영역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듣 기]

<1번> 이제 여러분은 여행 중에 주고받는 '가족 간의 대화' 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버지 : 자, 이제 출발한다~.(부우웅~~하는 소리)
 딸 : 야, 신난다.
 어머니 : 원, 애는..... 그런데, 여보, 가는 길 잘 아세요?
 아버지 : 그럼, 나를 믿어요.
 딸 : 우리 차엔 네비게이션 같은 '길도우미' 가 없잖아요. 처음 가는데, 지도책도 없고. 어떡해요?
 아버지 : 걱정 마. 아빠 실력도 지도책 못지않아요.
 딸 : 에이, 그러다가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아버지 : 이 녀석 봐라. 아빠 말을 못 믿네? 어, 저, 저기 있다. 저기 도로 표지판에 숫자 보이니? 타원형 속의 홀수 번호.
 딸 : 예, 그런데, 저게 왜요?
 아버지 : 타원형은 국도를 말하는 것이고, 홀수 번호는 남북을 잇는 도로라는 뜻이야.
 딸 : 그러면 짝수 번호는 동서 방향이예요?
 아버지 : 그렇지! 우리 딸 똑똑한데?(부우웅~~ 자동차 소리)
 딸 : 아빠, 계속 국도로만 가요?
 아버지 : 아니, 조금 있다가 고속도로로 진입해야지. 어디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지 아니?
 어머니 : 그야, IC인가, JC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도 홀짝 번호 규칙이 있어요?
 아버지 : 그럼, 국도랑 똑같아요. 동서는 짝수, 남북은 홀수.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가려면 IC를 찾아야 하는데.....
 딸 : 어, 아빠, 저기 IC라는 표지판이 보여요. 어? 그런데 저 왕관 모양은 뭐예요?
 아버지 : 오~, 눈썰미가 대단한데, 맞아, 고속도로 번호는 왕관 모양 속에 있어.
 어머니 : 그러면, 여보, JC는 뭐였죠?
 아버지 : 아, JC? JC는 두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어머니 : 그럼, 만약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려면 JC에서 짝수 번호 고속도로를 타야 하네요?

아버지 : 이야~, 이제 보니, 우리 가족들 실력이 보통이 아닌 걸?
 온가족 : (웃음소리)

1.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들려 준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고속도로와 국도, IC와 JC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보를 듣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지도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고속도로와 국도 모두 동서 방향으로 나 있는 길은 짝수 번호를 부여하고, 남북 방향은 홀수 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왕관 모양의 틀 속에 숫자를 쓰며, 국도는 타원형 모양의 틀 속에 숫자를 쓴다. IC는 국도와 고속도로를 서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을 가리키며, JC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서로 만나는 접점을 가리킨다.

<2번> 이번에는 '강연' 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강사(남자) : 여러분! 남사당패라는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해서, 큰 성공을 거둔 영화 한 편을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가 성공을 거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문화 콘텐츠 기술도 한몫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영화를 보면 임금이 경복궁 근정전에서 정사를 돌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정전이 국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근정전에서 영화를 찍겠습니까? 여기서 문화 콘텐츠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 기술이란 문화와 만나는 기술, 또는 문화를 뒷받침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마침 특수한 기술을 이용해서 고궁의 모습을 디지털로 완벽하게 담아 놓은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실제와 똑같은 세트 장치를 꾸민 것입니다. 흔히 문화와 기술은 서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화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지금, 기술 없는 문화는 한쪽 날개로 날려는 새와 같습니다. 문화 없는 기술만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없듯이, 기술 없는 문화로는 표현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앞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기술, 이 두 날개를 함께 펼쳐야 합니다. 이 두 날개가 균형 있게 성장해 간다면 우리 문화 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2. [정보의 주제 파악하기]

[출제의도] 강연의 주제를 파악하여 제목을 붙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강연의 내용은,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영화에 문화 콘텐츠 기술이 적용되어 영화의 완성도를 높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 콘텐츠에는 기술이라는 요소가 효율적으로 접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연자는 문화 없는 기술, 기술 없는 문화 모두 각각 한계가 있음을 진술하면서 두 분야의 적절한 접목은 문화 산업 분야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3번> 이제 여러분은 '라디오 방송' 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음악 편지' 시간이에요. 오늘은, 딸에게 보내는 한 어머니의 편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잔잔한 음악~)

(목소리, 어머니) : 사랑하는 딸아, 지난 번에 엄마가 너에게 싫은 소리를 한 뒤로, 너는 지금까지 엄마한테 말을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음악과 함께 엄마의 진심을 전하고 싶다. 딸아, 엄마 너만 보면 항상 흐뭇하단다. 너라는 존재는 엄마를 늘 기쁘게 하거든. 네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 엄마가 왜 모르겠니?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치장을 하고, 심지어 성형 수술까지 하고 있지 않니? 그렇지만 네가 귀고리를 하고, 아침밥까지 굶는 것을 보니, 엄마로서는 너무 안타까웠다. 사람들이 외모에 너무 치중하다가 자신의 본바탕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지. 엄마는 그것이 걱정되었던 거야. 딸아, 정말 중요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게 된단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자신의 꿈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단다. 그러면 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11월 어느 날. 엄마가

3.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편지 내용을 듣고, 글쓴이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쓴 것을 찾는 문제이다.

[해설] 어머니는 딸이 지나치게 외모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에 대해 야단을 쳤으나, 이 일로 인해 딸이 한동안 말을 하지 않자, 걱정되는 마음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편지를 투고하여 어머니의 진심어린 마음을 보여 주려고 한다. 따라서 자신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야단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딸의 생각은 어머니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5번> 이번에는 ‘훈민정음’ 과 관련한 가상 드라마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입금 : 일전에 과인이 ‘삼강행실’ 을 정음으로 편찬하여 백성들에게 배포하라 하였거늘 어떻게 되었는지?

신하 : 전하,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음은 사람의 자질에 달려 있는 바, 책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책을 정음으로 만들라 하시니 이는 더더욱 불가하옵니다.

입금 : 뭐라. 정음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신하 : 원래 우리 조선은 이제껏 중국과 글을 같이 하여 한글같이 중화의 제도를 지켜왔습니다. 헌데, 정음 창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중국과 글이 달라져, 오락케가 해온 습속을 밟게 되었으니, 이는 중화를 사모하는 모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음은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한 것’ 이온데, 이는 옛것에 반대됩니다.

입금 : 경은 들으시오. 경이 이르기를,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글에 위배된다.’ 고 하였는데, 설총의 이두 역시 그러한 것이 아니오?

신하 : 전하, 이두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한 것’ 이기는 하나, 그 소리는 중국 것을 따른 것이옵니다. 그래서 이두는 학문의 발전으로 연결되었사옵고, 백성의 교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사옵습니다. 이에 비교할 바가 못 되옵니다.

입금 : 설총이 이두를 제작한 본뜻도 백성을 이롭게 하려 함이고, 과인 역시 그러헌데, 설총은 옳다 하면서 과인은 그르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백성들이 정음을 읽어 충신이나 효자, 열녀의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이 역시 백성의 교화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신하 : 전하, 만약 정음이 널리 쓰인다면, 신료들 중에서도 필히 정음에 통달한 자가 나올 터인데, 그렇다면 후진들은 28자의 정음만 익혀도 충분히 출세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니, 무엇 때문에 힘들여 학문을 연구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쌓아 온 학문의 바탕이 모조리 없어질까 두렵사옵습니다. 또한 옛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병폐인데, 이번에 정음이 그러한 것 같사옵니다.

입금 : 내 늘그막에 옛 서적을 벗 삼아 노년을 즐기 보내고 있노니, 과인이 어찌하여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좋아해서 정음을 찾으려 하는 것이겠는가. 게다가 전에는 정음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놓고, 지금은 도리어 안 된다 하니 이는 대체 무슨 생각에서 하는 행동인가. 이에 경은 돌아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시오.

4. [내용 추론하기]

[출제의도] 드라마의 내용을 듣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두는 ‘글자를 쓰고 음을 붙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훈민정음과 유사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훈민정음 창제가 이두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5.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출제의도] 말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입금과 신하는 훈민정음 사용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신하는 옛것에 반대되는 것임, 학문 발전과 백성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 새로운 것만 찾는 인간사회의 병폐를 보여 주는 것임 등의 항목을 들어 훈민정음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삼강행실’을 언문으로 제작하여 백성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입금은, 이두 역시 옛것과 반대되는 것임에도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였고, 훈민정음을 통해 백성들이 충신 등의 예들을 알게 되는 것 역시 백성 교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나이가 들어 옛 책을 탐독하며 즐거워하고 있으므로 새것만 찾는 병폐의 한 부분으로 훈민정음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금의 말하기는 신하의 주장에 들어 있는 모순을 찾아내어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쓰기]

6. [시각적 자료를 통한 연상하기]

[출제의도] 그림을 바탕으로 내용을 착안하여 교훈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한 자료는 물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림이다.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 ①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어구와 ‘순리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연상할 수 있다. ②의 ‘물은 막히면 돌아간다.’는 말은 물의 흐름을 가로 막고 있는 바위 주위로 물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연상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윤통성 있는 삶의 자세’를 교훈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③의 ‘물도 가다가 굽이를 친다.’는 착안 내용은 ‘인생에는 전환기가 있기 마련이다.’는 뜻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④의 ‘덕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를 통해서 연상할 수 있으며, ⑤의 ‘깊은 물은 소리가 없다.’는 착안 내용을 바탕으로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다.

7. [조건에 맞는 글 쓰기]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명상의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어진 조건을 모두 활용한 것은 ④이다. ④의 ‘행운은 네 옆 클로버처럼’과 ‘행복은 세 옆 클로버처럼’에서는 직유를, ‘행운이 찾아오다’와 ‘행복이 곁에 있다’에서는 의인술, ‘행운은-네 옆 클로버처럼-우연히-찾아오고’

와 '행복은-세 잎 클로버처럼-언제나-곁에 있습니다.'에서 형식상 대구적 기법을 찾을 수 있다. ③에는 비유적 표현은 있으나 대구적 기법은 찾을 수 없다. ②에는 대구적 기법은 보이나 비유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8. [자료를 활용하여 글쓰기]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에서는 2004년~2006년까지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에서는 접이식 자전거 품질 관리 소홀이 우려된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역할을 지적할 수 있으며, (가)와 (나)를 활용하여 자전거 사고가 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전거 사고 증가와 이용 공간과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 (나)와(다)를 활용해서는 (나)의 차체 파손으로 인한 사고 10.3%와 (다)의 자전거 품질 관리 불량 실태를 조합하여, 품질 관리 불량도 한 요인이 됨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나)의 세 번째 표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의 경우 자전거가 가장 적으므로 이 자료를 이용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는 없다.

9. [개요 수정하기]

[출제의도] 개요 작성 후 수정한 내용이 적절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역사 드라마의 열풍'에 대해 글을 쓰기 위해 문단 간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서론에 '실태'를, 본론에 '원인-문제점-해결책'을, 결론에 '전망'으로 개요를 작성했다. 본론의 원인(Ⅱ-1-가)에는 역사 드라마 열풍의 구체적 원인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에 역사 드라마 열풍과 관련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완성도가 낮은 역사 드라마 제작'이라는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고쳐 쓰기]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첫째 문단은 칭찬의 힘에 관한 서술이고, 둘째 문단은 이러한 칭찬을 얼마나 일상화하고 있는가를 묻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의 두 문단 간의 관계는 화제를 전환하는 '그런데'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은 '칭찬합시다!' 캠페인에 좋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제안을 부탁하는 내용이므로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한다.'는 '참여'가 적절한 표현이다. '참석'은 '모임이나 회의 따위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문맥적 의미에는 적합하지 않다.

11. [문맥에 맞는 어휘 사용하기]

[출제의도] 문맥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칠칠하다'는 '주집이 들지 않고 깨끗하다'의 의미이므로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그런 짓을 하다니, 이 칠칠찮은 녀석아!'라고 해야 문맥에 맞는 표현이 된다. '여간내기'는 '뛰어나지 않은 보통 사람'을 의미하므로 '그 어려운 일을 해내다니 여간내기가 아니야.'라고 해야 문맥에 맞는 표현이다. '나는 미국에서 우연치 않게 그녀를 만났다.'는 단어의 의미에 주목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부정 표현을 구사하여 의미상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 속한다. 이 문장을 그대로 두면, '필연적으로 그녀를 만났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이와 같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뜻밖'의 의미를 지닌 말은 '우연히'이므로 '나는 미국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라고 해야 적절한 표현이다. '몹시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는 '안절부절못하다'이다. '안절부절못하다'는 '안절부절못하다'의 잘못된 표현이다. '방정 떨다'는 '몹시 방정스럽게 굴다'의 의미이므로 '진지해야 할 회의 시간에 방정 떨지 마.'는 문맥에 맞는 표현이다.

12. [어법]

[출제의도] 복수 표시의 쓰임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국어의 복수는 '-들', '-회', '-네' 등의 접미사를 써서 표시한다. '-들'은 수사를 제외한 명사, 대명사에 두루 쓰일 뿐만 아니라, ①의 부사에, ②의 종결 어미에, ③의 연결 어미 뒤에도 쓰인다. 그리고 ③처럼 자리를 이동해 붙여 써도 된다. ④의 복수 접미사 '-회'에 복수 접미사 '-들'을 다시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나 ⑤처럼 복수 접미사 '-네' 뒤에는 붙여 쓸 수 없다.

[시가 복합]

[13 ~ 18] 출전 : (가) 정지용, 「석류」
 (나) 김현승, 「플라타너스」
 (다) 충담사, 「찬기파랑가」

13.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는 겨울 밤 화롯가에서 지난 가을에 익었던 석류 열매를 쪼개어 알맹이를 맛보며 느끼는 정감을 그려놓은 시이고, (나)는 '플라타너스'라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덕성을 예찬하며 삶의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다)는 '기파랑'이라는 인물의 인품과 기상을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예찬한 작품이다. 이 가운데 작품의 공통점이 드러나는 것은 ③인데, (나)에서는 플라타너스의 꿈과 사랑을 아는 존재, 삶의 반력라는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내고 있다. (다)는 '조약돌', '갯가지' 등의 상징을 통해 대상의 높은 정신 세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①처럼 두 작품 모두 시대 상황에 대한 고뇌는 보이지 않으며, ②처럼 두 작품 모두 현실에 대한 풍자나 비판도 보이지 않는다. ④와 관련하여 (가)와 (다)는 과거의 경험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월적 세계에 대한 동경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세 작품 모두 현실과 화자가 꿈 꾸는 이상과의 괴리감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14. [시어의 공통적 기능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 속에서 시어의 공통적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의 '석류 열매'를 쪼개어 먹는 화자는 석류를 맛보는 과정에서 어떤 '투명한 옛 생각'을 떠올리고 있다. ㉡의 '조약돌'은 화자가 추모하는 대상인 기파랑의 정신적 표상을 상징한다. '조약돌'의 속성이나 형태로부터 '군쟁'이나 '원만함'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화자는 조약돌을 통해 기파랑이라는 대상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에서 시상 전개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석류를 먹는 행위에서 추억을 떠올리는 계기로 바뀌는 ㉠만 해당한다. ㉠, ㉡ 모두 화자의 갈등 상황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신비로움을 조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5.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 속에서 시인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의 사실과 관련하여 '신라 천 년의 푸른 하늘'이 슬픈 역사에 대해 고뇌하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석류를 맛보는 과정에서 떠올린 옛 사랑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은 '외롭게'와 '가볍게'를 병치시킴으로써 외로움의 정서로 치우치는 것을 막고 있으므로 '감정이 파잉 노출되지 않도록 절제된

언어로 형상화'했다는 설명에 해당한다. ③은 '밤'이라는 시각적 심상에서 '풀 사르는 냄새'라는 후각적 심상을 이끌어 낸 감각적 표현이므로 '감각적이고 참신한 이미지'에 해당한다. ④에서 '흰고기의 손가락'은 석류알을 꺼내는 손가락을 비유함과 동시에 3연의 금봉어를 연상시키며 손가락은 금봉어의 지느러미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흰 고기'에서 시각적 심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선명하고 세련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드럽고 약한'의 의미인 '여릿여릿'을 활용하여 석류알의 촉감을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⑤의 설명도 적절하다.

16. [제제를 중심으로 시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시적 대상과 관련하여 제제의 시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에서 '플라타너스'라는 시어를 중심으로 제제의 시적 의미를 파악해 볼 때, '하늘'은 '플라타너스'가 지향하는 세계로 '꿈과 이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 '길'은 화자와 함께 걸어 온 '인생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의 '흙'은 생명이 다하는 날의 '영혼의 안식처'로, ㉣의 '창'은 화자와 '플라타너스'가 이웃으로 '소통을 위한 통로'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의 '그늘'은 플라타너스가 베푸는 '사랑'으로 파악해야 하며, '심리적 상처'로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7. [비교를 통한 시적 상황 파악하기]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를 통해 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다)에는 '기과랑'에 대한 추모와 예찬이 나타나 있고, <보기>에는 임금의 뜻을 받들어 절개를 지키는 신하로서의 삶에 대한 다짐이 나타나 있다. ①에서 '서리'와 '풍상'은 모두 '시련, 역경'을 상징하며, '갓가지'와 '황국화'는 '푸른 기상'과 '절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갓가지-서리'의 관계는 '황국화-풍상'에 대응된다. 그러나 ②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상의 전개를 <보기>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③은 대상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바람은 두 작품 모두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④는 대상의 부재 상황이 (다)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또한 (다)에는 화랑의 우두머리인 '기과랑'에 대한 그리움이 '~화반(花班)이여.'에 담겨 있으나, <보기>의 화자는 '님(임금)'을 원망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볼 수는 없다.

18.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에서 파악한 화자의 태도와 유사한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다)의 화자는 '기과랑'이라는 대상이 지닌 높은 정신적 경지를 예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파악할 때 ④에서 '비로봉'을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에 빗대어 예찬하는 태도를 찾을 수 있다. ①에는 임금이 자신에게 관찰사의 소임을 내린 사실에 대한 고마움이 나타나 있으며, ②에는 '화룡소'를 통해 화자의 포부가 드러나고 있다. ③에는 화자의 풍류적인 태도가, ⑤에는 자연 친화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언어]

[19 ~ 21] 출전 : Bernard Spolsky(김재원 외 역), 「사회언어학」

19. [사실적 정보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첫째 문단에서 라보프는 피험자에게 글을 읽어보게 하여 격식적인 화체를 언어 내

었고, 감성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비격식적인 화체를 이끌어 내었으므로 감성적인 이야기는 대체로 비격식적인 화체이다. 그러므로 ②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은 첫 문단 첫째 줄, ③은 둘째 문단, ④는 마지막 문단, ⑤는 둘째 문단 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20. [정보를 확인하여 사례 적용하기]

[출제의도] 글 속에 담겨 있는 정보를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에서 화자는 청자가 손위 동서인 줄 알고 격식적인 화체를 사용하고, ㉢에서 화자는 청자가 손아래임을 확인하고 비격식적인 화체를 사용했다. ㉡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화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에서는 화자가 청자의 지시에 따라 화체를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은 '대화에서 두 사람의 발음이 서로 비슷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에서 화자는 격식체인 '합쇼체', 청자는 낮춤말을 쓰고 있어서 화자와 청자 간의 발음이 서로 닮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21. [중심 내용 추론하기]

[출제의도] 중심 내용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화체는 격식의 정도 차이에 따라 일어나는 언어 변이이다. 이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맞는 화체를 선택하려는 언어 현상의 일환이다. 즉, 화자의 '청자 지향적 계획', '조정'의 과정은 결국 화자가 청자를 고려한 말하기이다. 그러므로 언어 변이가 일어나는 궁극적인 원인은 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곡]

[22 ~ 24] 출전 : 함세덕, 「무의도 기행」

22. [감상 내용 적용하기]

[출제의도] 작품 감상 내용을 연극적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위 작품을 연극으로 공연하려 할 때, 계획할 내용 중 무대 설치의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바다로 나가려 하지 않는 천명과 집안의 생계를 위해 이를 강요하는 공씨의 대립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뱃일을 거부하고 어떻게든 바닷가를 벗어나려는 천명의 행동을 통해 볼 때 ④의 출어를 하는 어부들과 그와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무대를 항구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제시문에서 공간적 배경을 의미하는 '담밀'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도 집안이나 집 주변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3. [인물의 갈등 파악하기]

[출제의도] 인물의 갈등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된 부분은 천명이 공씨와 주학의 처와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다. 공씨는 가난한 집안 살림 때문에 천명이 배에 타기를 바라고 있으나 그것을 거부하는 천명의 행동에 대해 안쓰러움을 느끼고 있다. 주학의 처 역시 자신의 배에 천명을 태워 고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천명은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두 형의 죽음으로 인해 뱃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 ④에서 이들 인물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것은 서로 자신들의 욕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들 간의 욕망이 같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4. [감상 내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가와의 가상 인터뷰를 통해 작품의 주제와 창작 배경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해설] 가상 인터뷰에서 작가는 인간이 현실 속에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 작품을 이해한다면 생존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1930년대의 궁핍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씨와 천명의 대화에서 공씨는 천명에게 ‘물에서 버느니, 물에서 버느니 하고 있게 됐니? 긴긴 겨울을 뭇 먹꾸 살꾸, 할 때가 아니냐?’하며 집안의 어려운 처지를 들어 천명을 설득하며 천명은 이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집안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㉓은 가난이 지배하는 궁핍한 현실 상황에 대한 진술이므로 적절한 감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인 문]

[25 ~ 27] 출전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철학 스케치2」

25. [중심 내용 확인하기]

[출제의도] 글을 바탕으로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기존의 성리학이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와 인격 수양에 치중했다면, 정약용은 인간 본성의 탐구보다 현실적 삶에 치중할 것을 역설하고, 나아가 인심(人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㉓의 ‘인격 수양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은 기존의 성리학적 관점이다. 정약용의 생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고 보았으므로 ㉓은 거리가 멀다.

26. [상황에 맞게 추론하기]

[출제의도]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A]에서 정약용은 인심(人心)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보기>에서 시적 화자는 ‘안빈낙도’의 유교적 이념이 현실의 삶 속에서 힘없이 무너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굶주리는 가족들 앞에 체면이 서지 않게 되고, 심지어 부잣집 곡식 노적 가리에도 눈이 가게 된다. ㉕에서 ‘생기를 잃은 꽃과 나무’와 ‘시들해진 서책과 글’은 가난 때문에 생긴 자괴감에 대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인심’보다 ‘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7. [구체적인 사례 적용하기]

[출제의도] 이해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인(仁)의 정신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며 다분히 타인 지향적이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㉑, ㉒, ㉔, ㉕는 타인과의 관계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드러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추구하는 실천 덕목이다. 그러나 ㉓의 ‘학문 연구’는 타인을 사랑한다든지 타인을 위한 실천 덕목이 아니므로 인(仁)의 실천 덕목과 거리가 멀다.

[예 술]

[28 ~ 31] 출전 : 임두빈, 「한 권으로 보는 한국미술사 101장면」

28. [사실적 정보를 확인하기]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첫 번째 문단에서 서양의 풍경화는 자연과 인간, 자연과 신, 신과 인간의 분리라는 이원론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㉔의 서양의 풍경화는 전원적 일원론의 우주관에서 탄생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으며, 전원적 일원론은 동양의 우주관에 해당한다.

29.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17세기에 그려진 호베마의 풍경화이다. 이 그림은 종래와는 다른 시각으로 자연의 불가사의한 힘에 대하여 친화감을 느끼면서 자연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낭만주의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㉒의 종교적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 적절한 감상이다. <보기>는 이미 풍경화가 그림의 주제로 자리 잡았던 낭만주의 시대의 그림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자연 풍경을 도입하였다는 ㉑의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보기>의 풍경화는 실제 존재하는 자연을 친화감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므로 ㉓, ㉔, ㉕도 잘못된 진술이다.

30. [대상의 특징 추론하기]

[출제의도] 서양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동양 산수화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A]의 ‘자연 풍경과 일체가 되어 그 속에서 다시점(多視點)의 유동성을 보이는 동양의 산수화’라는 진술을 통해서 동양 산수화를 설명할 수 있다. ‘자연 풍경과 일체가 되어’를 통해 ㄷ을, ‘다시점의 유동성을 보이는’을 통해 ㄴ을 확인할 수 있다. ㄱ과 ㄹ은 동양화에 대한 맞는 진술이나 [A]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이므로 정답과는 관련이 없다.

31. [유사한 사례 적용하기]

[출제의도] 부사어의 호응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㉑의 ‘매우’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 어휘적 호응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㉒와 ㉓은 반드시 부정의 서술어와 함께 사용해야 하며, ㉔와 ㉕는 당위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호응을 이룬다.

[현대 소설]

[32 ~ 35] 출전 : 조선작, 「고압선」

32. [소설의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소설을 읽고 서술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도시 소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소재를 통해 소시민의 삶의 애환을 그려낸 소설이다. 제시문은 대화와 서술을 고루 사용하여 인물의 성격 및 작중 상황을 생동감 넘치게 보여 주고 있다. 제시문에는 회상 형식이 쓰이지 않았으며, ‘집 보러가기’라는 통일

된 장면이므로 빠른 장면 전환은 아니다. 또한 이 장면은 시간적 배경이 큰 의미가 없으며 서술 시점은 1인칭 시점으로 일관되고 있다.

33.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을 보면 아내는 집을 보러 가면서 주인집 마누라에게 일부러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때 아내는 셋방살이를 벗어나 집을 사게 되는 상황이므로 주인집 마누라에게 그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 하며, 이제 더 이상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진다. 복덕방 영감은 고압선이 그 집 위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최대한 집값을 많이 받아 내려고 하였다. 따라서 ㉠에 담긴 심리는 집값을 비싸게 받아내기 위해 일단은 강하게 나가면서도 '나'가 그 집 위로 고압선이 흐른다는 것을 계속 몰랐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다. ㉡에서 '나'는 구경 가는 집에 대하여 아내가 너무나 기대에 차 있기 때문에 고압선이 있다는 사실을 차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에서 기욱이는 행동이나 대화의 내용으로 볼 때 구경하는 집에 대하여 만족해 하며 자기 방이 생기자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 '나'는, 앞뒤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기욱이가 신이 나서 소리치는 말을 듣지만 고압선 때문에 집을 산다는 결정은 내리지 못한 채 그저 아이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

34. [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감상하기]

[출제의도] 소설 뒷부분의 줄거리를 참고하여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나'가 '고압선'을 보는 순간 크게 충격을 받은 것은 자신들이 보러 가는 집이 기대했던 '좋은 집'이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 계층 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차이를 깨달았기 때문은 아니다. 제시문에는 계층 간의 경제적 차이나 대립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집을 사서 집주인으로서의 행복을 만끽하면서도 '고압선' 때문에 꺼림칙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꺼림칙한 기분은 소시민들이 늘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이 깨어질까봐 전전긍긍해하며 불안해 하는 심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사한 후 결국 동네에서 '고압선'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목격하게 되는데 이를 보면 '고압선'은 소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를 속여서 비싼 값에 집을 팔려고 하고, 집을 되팔러 오는 '나'에게는 야박하게 대하는 복덕방 영감의 행동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하여 이득만을 추구하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결국 작가는 가난한 도시민의 '내집 마련'이라는 소재를 통하여 소시민들이 겪는 삶의 아픔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동정과 연민의 시선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35. [특정한 장면의 기능 파악하기]

[출제의도] 특정한 장면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A]는 '나'가 고압선을 최초로 발견하게 되는 순간으로서, 이 '고압선'을 보고 '나'는 집에 대한 기대감이 비참한 마음이 되어 버리고 집을 사려는 마음이 변하게 된다. 그 사실을 바로 가족들에게 밝히지는 못하지만 '고압선'의 위력을 알기에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건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순간이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된다기보다는 갈등의 원인이 제공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물의 성격은 직접적으로 진술되지 않았으며, 소재를 제시하고 배경을 묘사하는 대목으로서 인물의 현실 대응 방식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고전 소설]

[36 ~ 39] 출전 : 허균, 「홍길동전」

36. [인물에 대한 정보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은 '하늘의 형상을 보고 부친의 위중함을 아는 부분'에서, ③과 ④는 임금과의 대화 장면에서, ⑤는 '신의 소원을 풀어주옵시니 ~ 이후로는 길동이 폐단이 없음을 사방이 태평하더라'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길동은 승려 차림으로 일엽소선을 타고 조선으로 향한 것으로 보아 ②의 내용을 본문에서 파악하기는 어렵다.

37. [설화와 비교 감상하기]

[출제의도] 설화와 비교 감상한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에서 괴물에게 납치된 딸을 찾아주면 전제산을 반분하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선비는 처녀를 찾으러 산속으로 들어갔지만, 길동은 약초를 캐기 위해 망당산에 갔다가 우연히 요괴들을 만나 잡혀간 처녀를 구한다. 따라서 ⑤에서 길동이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괴물과 싸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8. [주요 사건의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주요 사건의 의미 및 평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특정 장소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요약하고 그 사건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 ①에서 길동은 궁궐 후원에서 임금을 만나 천비 소생이었기 때문에 관직에 나가는 것이 막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적서차별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과 ④에서 길동이 망당산에서 요괴를 물리치고 두 처녀를 구해 백성들로부터 환영받는 것은 길동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시키면서 민중들에게 신뢰를 받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⑤에서 길동이 월봉산에서 아버지의 묘소를 크게 마련하는 것은 '효'에 기반한 행동이다. 하지만 ②에서 길동이 제도 섬에 들어가 농업과 군사 양성에 힘쓰는 것은 국가로부터 부여한 직분에 충실한 삶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 하면 제도라는 섬은 조선을 떠난 길동이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39. [상황에 맞는 한자 성어 찾기]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자중지란(自中之亂)은 '한 패 속에서 일어난 싸움'이라는 의미이므로 ㉠ '모두 소리 지르며 달아나거늘'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혼비백산(魂飛魄散)이다. ㉡ 오리무중(五里霧中)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길이 막연함'을 의미하며, ㉢ 명재경각(命在頃刻)은 '거의 죽게 되어서 목숨이 곧 넘어갈 지경에 이름'을 의미하며, ㉣ 천우신조(天佑神助)는 '하늘과 신령의 도움'을 의미하며, ㉤ 환호작약(歡呼雀躍)은 '기뻐서 소리치며 날뛴'을 의미한다.

[과 학]

[40 ~ 42] 출전 : 한국과학문화재단 위음, 「교양으로 읽는 과학의 모든 것2」

40. [제목 추론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글의 내용을 종합하여 적절한 제목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주어진 글의 소재는 ‘쓰나미’이다. 주요 내용은 ‘쓰나미’의 의미 및 유래, 발생 원인, 위험성, 역사적 기록 및 피해 사례, 대비 방안 등이다. 이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글의 제목은 ‘대양의 폭군, 쓰나미의 정체’가 적절하다. 나머지는 일부분의 내용만 담을 수 있는 제목이거나 부적절한 제목이다.

41.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글을 쓰는 과정에 반영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주어진 메모지의 내용 중 ㄱ은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 ㄴ은 다섯 번째 단락에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폭풍 해일과 쓰나미의 발생 원인이 다름을 밝히고는 있지만 그 피해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마지막 단락은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이지 쓰나미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없다.

42. [주어진 정보를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A]에서, 외해에서 쓰나미가 발생하게 되면 파고는 1m정도이지만 파장은 100km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의 지진 해일파와 다음 지진 해일파 사이의 거리가 100km에 이르지만 해일파의 높이는 1m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외해에 있는 배는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관측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에 쓰나미가 해안선 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점점 얕아지기 때문에 이동 속도는 다소 느려지지만 해일파의 높이는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외해에 있는 배가 쓰나미 경보를 접수했을 때 안전을 위해 취해질 적절한 대처 방안은 최대한 육지와 멀어지기 위해 외해 쪽으로 나가는 것이다.

[사 회]

[43 ~ 46] 출전 : 강승훈, 「2010 대한민국 트렌드」

43.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문은 디지털 세대의 특징을 밝히면서 그들에 관한 바람직한 관점을 드러낸 글이다. 이들 디지털 세대의 성장 환경은 1문단에, 의사 소통 방식은 2문단에, 사고 방식과 행동 특성은 2~4문단에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세대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정보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44. [논지 전개 방식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은 디지털 세대의 사고 방식과 행동 특성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휴대폰, 메신저, 문자 메시지, 게임, 인터넷의 하이퍼 링크 등의 예를 들어 디지털 세대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대학 본고사 결과를 하루 만에 발표한 일본의 어느 대학, 블로그와 미니 홈페이지 열풍, 월드컵 거리 응원과 촛불 시위 등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45. [반응의 타당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논지에 맞는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글쓴이는 마지막 문장을 통하여 ‘세대 간 사고와 행동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

하자’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생활 방식이 다르더라도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ㄴ과,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 세대의 생각이 우리와 다름을 인정하자는 ㄷ이 제시문의 논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세대를 비판하고 있는 ㄱ과, 기성 세대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ㄴ은 특정 문화에 치우친 견해로 제시문의 논지와 맞지 않는다.

46. [문맥에 맞는 격언 찾기]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격언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보면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인재가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새로 빛은 술은 새로 만든 포대(그릇)에 담아야 한다.’는 뜻의 ②가 적절하다. ①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극복할 길은 있다.’, ③은 ‘아무리 큰 일이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④는 ‘외부에서 들어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오래 전부터 있던 사람을 밀어 낸다.’, ⑤는 ‘어떤 한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와 비슷한 일도 못할 리가 없다.’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기 술]

[47 ~ 50] 출전 : 사마키 다케오(정난진 역),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주변 물건 비밀 100」

47. [정보를 바탕으로 반응하기]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에 의하면 형광관 안에서 발생하는 자외선은 형광 물질에 닿는 순간 가시광선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자외선 때문에 눈이 피로하다고 한 반응은 부적절하다. ②는 3문단의 ‘~미량의 수은이 들어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③은 백열등의 열방사를 설명한 1, 2문단을 바탕으로, ④는 2문단을 바탕으로, ⑤는 ‘유리관 내벽에는 ~ 색깔이 달라진다.’는 3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응이다.

48. [정보를 통해 원리 파악하기]

[출제의도] 대상의 작동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4문단을 중심으로 형광등이 켜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글로 램프에서 글로 방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글로 램프 꺼지면서 형광관에는 고전압이 걸리고 열전자 방전된다. 그리고 열전자는 형광관 속의 수은 원자와 충돌하여 자외선을 방출하고, 이때 방출된 자외선의 형광물질과 반응해서 가시광선을 바꾸면서 형광등이 켜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바르게 정리한 것은 ②이다.

49. [정보를 확인하여 역할 유추하기]

[출제의도] 정보를 통해 파악한 대상의 역할을 다른 장면에서 유추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의 ‘글로 램프’는 형광등이 켜지도록 촉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펌프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을 먼저 붓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 수월하게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때 부어주는 물을 새 물을 맞이하기 위해 부어 주는 물이라는 뜻에서 ‘마중물’이라 부른다. 따라서 마중물은 펌프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①의 역할과 유사하다. ①의 스피커는 마지막 단계에서 출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③의 방향키는 운동 방향을 결정하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④의 팽과리는 개성을 존중하며 화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⑤의 화재 감지기는 조건에 따라 반응하여 상황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50. [문맥에 맞는 어휘 선택하기]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로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의 '부착'의 의미는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음. 또는 그렇게 붙이거나 닮'이고, '정착'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붙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삶'을 의미하며, '유착'은 '사물들이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결합하여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 '방출'은 '입자나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냄'을, '유출'은 '물품이나 정보 등이 불법적으로 나가 버림'을, '배출'은 '인재(人材)가 계속하여 나옴'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의 '붙어'는 '부착되어'로, ㉡의 '나오게 된다'는 '방출된다'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